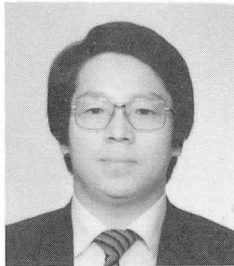




# 여름철에 발생이 많은 돼지의 주요 질병



예 재 길 박사  
(한국바이오테크놀로지 학술후장)

## 1. 서론

지난 겨울은 돼지 질병에 의한 피해가 많았던 시기였다. 사육두수가 감소해도 돈가(豚價)의 급등이 없는 요즘의 양돈경기 속에서 폐사두수를 줄이고 질병에 의한 성장부진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만이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경영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돼지의 주요 질병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열사병

돼지의 열사병이란 주위 환경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 조절기능의 장애현상을 말한다. 일사병은 열사병의 급성형태로 햇볕에 갑자기 노출되어 태양열에 의하여 체온이 올라갈 경우 혹은 강한 햇빛 아래서 심한운동을 시키면 발생하는 질병으로 폐사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열사병, 일사병은 같은 원리로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따로 분류하는 것보다 돼지에서는 동일한 질병으로서 열사병으로 통일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원인

체온은 근육의 운동, 음식의 대사,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질병, 더운 환경온도 등의 영향을 받을 때 올라간다. 열은 섭취한 음식물이나 흡입한 공기를 체온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열의 전도, 대류, 발열 및 피부에서의 수분증발 등으로 발산된다. 그러므로 열생성을 촉진시켜 돼지의



체내에서 계속 열이 발생되거나 열의 발산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과온증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돼지의 폐장은 다른 가축에 비하여 열을 발산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돼지 자체가 두꺼운 지방층이 있으므로 열발산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폐장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돼지도 더운 날씨에는 과온증이 발생되며 열사병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우기 다른 질병에 감염되어 있거나 사육조건이 나빠지면 치명적인 증상으로 진행되어 폐사될 수도 있다. 열사병에 의한 돼지의 폐사는 온도와 습도에 관계가 있으며 수송중의 온도와 습도의 영향은 <표1>과 같이 습도가 높을수록 낮은 온도에서도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2)임상증상**

초기에는 원기소실을 보이고 그늘을 찾으며 많은 물을 섭취한다. 상태가 악화될수록 호흡곤란, 입으로 숨을 쉬며 침을 많이 흘리면서 불안해한다. 체온은 42-43℃까지 올라간다. 말기에는 광폭해지고 자세를 자주 바꾼다. 또한 순환장애로 인하여 산소결핍이 되면 눈주위점막, 구강점막이 파랗게 된다. 점차적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며 심할 경우에는 수시간 이내에 폐사한다. 급성 열사병상태에서 회복할 경우에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잘 견디지 못하여 폐사할 수 있다. 또 후유증으로 신경증상을 나타낼 때도 있으며 임신돈은

<표1> 수송중의 온도와 습도의 영향

온도(℃)	상대습도(%)	
	위험수준	응급사태
26.7	80	100
29.4	50	95
32.2	30	70
35.0	15	40
37.8	5	30
40.5	항상	항상

유산이나 사산을 할 때도 있다. 폐사되면 혈액 섞인 포발성 삼출물이 코로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검소견은 특별한 병변이 없으나 폐장은 충·출혈을 보인다.

**(3)치료방법**

열사병의 증상을 보이는 돼지의 치료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환돈이 누워있는 바닥주위에 찬물을 많이 부어준다.
- ② 환기를 최대한으로 시켜준다.
- ③ 체온을 측정하여 고온이면 해열제를 주사하여 준다.
- ④ 광폭해지거나 과민반응을 보일 때는 진정제를 주사하여 준다.
- ⑤ 대사촉진제를 주사하면 열사병의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다.
- ⑥ 필요에 따라서 광범위항생제를 주사하여 세균의 2차감염을 막아야 한다.

**(4)예방대책**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사양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 ① 충분한 그늘, 물, 염분을 공급하고, 환기를 잘 해준다.
- ② 찬물수조를 만들어 준다.
- ③ 영양공급을 균형있게 해준다.
- ④ 방목장의 사료통은 그늘에 설치하여 준다.
- ⑤ 돼지의 이동은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게 실시한다.
- ⑥ 번식기간 동안은 암돼지와 수돼지를 잘 구분하여 불필요한 성적 흥분을 막아준다.
- ⑦ 울타리는 나무판자보다 철사로 엮어준다.
- ⑧ 햇빛을 반사시키고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하여 돈사 지붕은 흰색으로 칠한다.

“

하절기에는 특히 철저한 예방접종, 소독철저, 돈분작업등 위생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또 변패된 사료 급여시 곰팡이 독소 중독증의 예방을 위해 윤환급여제도를 철저히 시행토록 한다.

”

⑨모든 매우 비만되지 않도록 한다.

⑩돼지를 더운 날씨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짧은 시간동안 햇빛에 노출시킨다.

⑪돼지를 합사시킬 때 서늘한 시간을 선택하여 합사시키고 진정제를 주사하여 싸우지 않도록 해주며 합사한 돈방에 청초, 호박, 신선한 흙 등을 넣어준다.

⑫분만사의 지붕위로 물을 뿌려주면 돈사내 온도가 내려간다.

⑬돈사시설은 벽·천장에 충분한 단열재를 설치한다.

⑭보일러가 장치된 돈사에서는 찬물로 돈사내를 순환시키면 돈사내 온도가 내려간다.

### 3. 포유모돈의 무유증, 저유증

여름철에 포유모돈은 유방염, 자궁내막염으로 인하여 젖의 생산 및 분비가 감소되어 저유증 혹은 무유증이 발생되기 쉽다.

#### (1)원인

직접원인으로는 고온다습한 기후와 세균감염이며 여러가지 요인이 동반되다. 또 유즙분비 촉진호르몬의 분비감소로 인한 무유증도 발생될 수

있다. 분만직전과 직후 사료의 과다급여로 인하여 위·소장에 세균감염 및 세균발육을 촉진시켜 저유증이 발생될 수도 있다.

#### (2)임상증상

일반적으로 이 병은 완전무유증 보다는 저유증의 상태를 보인다. 유방염이나 자궁내막염을 동반한 저유증의 경우 식욕절폐, 포유기피, 체온 상승 등의 증상을 보이고 유방은 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유방을 만지면 통증을 호소한다.

#### (3)치료방법

①원인을 파악하고 사양환경을 개선해 준다.

②치료약제는 포유모돈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약한다. 즉 항생제, 대사촉진제, 옥시토신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칼슘제, 포도당주사액 및 해열제 등이다.

③자궁세척을 실시하면 회복이 빠르다.

④유방맛사지 및 냉습포를 해준다.

치료시 양돈전문수의사나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다.

### 4. 돼지단독(丹毒)

여름철에 돼지단독의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 (1)원인

돼지단독의 원인은 돼지단독균으로서 감염되면 발열, 피부병변, 관절염, 패혈증 및 폐사될 수도 있다. 돼지단독은 3개월령 이상의 비육돈, 후보돈, 모돈에서 발생이 많으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장에서 발생이 많다.

#### (2)임상증상


돼지단독의 임상증상은 급성 패혈증, 피부병변, 관절염 그리고 심내막염 등으로 나타난다.

### (3) 치료방법

돼지단독의 치료는 원인세균 사멸, 관절염의 치료, 원기회복 등이다. 즉 감수성이 우수한 항균 물질, 해열 진통제, 대사촉진제 등을 돼지단독 치료제로 사용하여야 한다.

### (4) 예방

돼지단독의 예방은 예방접종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즉, 분만예정모돈에게는 분만전 4주와 2주에 예방접종을 해준다. 단, 생균동결건조백신을 접종할 경우 분만전 2~4주경에 한번만 주사하여도 된다. 자돈은 7~8주령에 1차, 11-12주경에 2차 접종을 해야 출하시까지 안전하다. 동절기에는 1차 접종으로도 충분하지만 하절기에는 2차 접종할 필요가 있다.

철에 많은 발생을 보이는 질병은 돼지 콜레라, 병원성 대장균 감염증, 돼지적리, 살모넬라 감염증, 클로로스트리디움성 장독혈증, 내부기생충증 및 외부기생충증 등이다. 그러므로 하절기에는 특히 철저한 예방접종, 소독철저, 돈분작업 등 위생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또 변패된 사료급여시 생길 수 있는 곰팡이 독소중독증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즉 윤회급여제도(먼저 입고된 사료를 반드시 먼저 급여하는 방법)를 철저히 시행하여 돈사내에서 사료의 변질을 막아야 한다. 장마철에 비에 젖은 사료는 곰팡이가 증식하기 전에 빨리 급여시켜야 하며, 돈사내 사료급여기 내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사료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질병관리 만큼이나 사료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여름철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양돈장의 생산성 향상에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 5. 기타 주요 질병

열사병, 모돈의 무유증, 돼지단독 이외에 여름

### • 토 맥 상 식 •

#### 돼지고기 영양수준 만점

돼지고기는 저열량이면서 고영양 식품이기 때문에 영양밀도가 높다. 영양밀도란 식품이 함유한 열량 대 영양수준의 비율이다. 돼지고기와 반대로 과자, 사탕등은 영양밀도가 낮는데 이것들은 열량이 높고 영양분이 적다. 따라서 알맞은 열량과 다량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최상의 식품투자인 셈이다.

그러면 영양분을 높게 함유한 식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영양분 다시말해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 즉 뼈, 근육, 기관, 신경, 혈액 등을 성장 유지시키는데 필요하다. 우리 신체가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일 50가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식품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